

## 2007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 10. 10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 찬란한 아침이여! 문화의 새날이여!

-문화원 개관 60년 기념 문화비전 선언에 붙여-

이근배 / 前 한국시인협회 회장 · 시인

더 높고 더 푸르른  
이 나라의 가을하늘이여라  
세종임금 한글 지으신 오백예순 한 해  
21세기 IT시대에 세계가 우러르는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문자  
한글의 달, 시월상달, 문화원의 날에  
오늘 이 땅의 문화를 가꾸고 지키는  
전국의 문화인이 한 자리에 모여  
문화비전 선언을 터뜨리는 날이여라

보라  
오천년 역사 즐기즐기  
백두대간 굽이굽이 맥맥히 혼불로 타오르고  
눈부시게 솟아오르는 문화예술의 금자탑들을  
고구려 벽화에서는 광개토대왕이  
말을 타고 달려 나와 대륙을 호령하고  
첨성대, 석굴암대불이  
하늘과 바다에 신라의 금빛을 뿌리니  
운주사 미륵와불이 백제의 꿈을 일으켜  
자유, 평화의 새 천지를 여는구나

그렇다

이 나라는 세종대왕의 나라, 고려청자의 나라  
팔만대장경의 나라, 금속활자의 나라, 거북선의 나라  
조선 백자의 나라, 솔거의 나라, 김생의 나라  
원효의 나라, 이규보의 나라, 춘향전의 나라  
홍보가의 나라, 정약용의 나라, 김정희의 나라  
여기서 나라가 일어서고  
여기서 백성들을 살찌우고  
여기서 외적들을 물리치고  
여기서 인류에 앞서가는 슬기를 뿔어왔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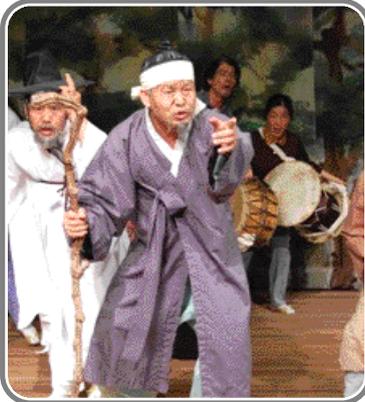
문화는 나라를 세우고 겨레를 낳고  
역사를 만들고 정치를 바로 세우고  
경제를 북돋우고 자유와 평화를 꽃피우나니  
문화는 행복이다, 사랑이다, 통일이다

오늘 우리 지지 징징 징을 치고 북을 울리자  
오래 참아온 신명의 한 마당  
동계 동계 우리말이 우리글이  
우리 가락이 우리 슬기가  
지구촌에 가득 넘치도록 한류의 하늘  
한류의 바다로 밀어 올리자  
지구촌에 우뚝 서는 문화예술의 나라  
문화예술 겨레로 높이 높이 솟아오르자



2007 황성문화원  
**대보름 행사**  
[www.hs-culture.or.kr](http://www.hs-culture.or.kr)





2007 황성문화원  
**문화행사**  
[www.hs-culture.or.kr](http://www.hs-culture.or.kr)





2007 왕성문화원  
**축제공연**  
[www.hs-culture.or.kr](http://www.hs-culture.or.kr)





2007 황성문화원

## 실버학교 수료식

[www.hs-culture.or.kr](http://www.hs-culture.or.kr)



# 2007

<http://www.hs-culture.or.kr>

## 횡성문화

09 /  
11 /  
13 /

### I. 향토문화사 및 향토인물탐구

17 (高荊山) /  
27

### II. 향토문화 연구 및 사료

33 /

### III. 문화탐방

51 /  
61 /

### IV. 횡성 사람, 횡성이야기

69 「 橫城」 /  
72 가 /  
78 가 ... /  
81 /  
84 /  
86 /  
89 가 /  
91 , /  
93 , /  
96 , /  
100 /



# CONTENTS

## V. 문화유산탐방

115		/
119	/	
121	/	
124		/

## VI. 문예마당

129	/	
130	/	
131	/	
133	/	
134	/	
135	/	
137	/	
138	讀師任堂思親詩有感 /	
139	追慕忠毅公鄭起龍將軍 /	
140	/	
143	가	/
146	가	/

## VII. 문예백일장

155	/	
157	/	
159	/	
161	/	

## VIII. 문화원 소식 및 회원명부

165
180



## 발 | 간 | 사



12월의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이때 지난 24년간 황성문화를 정리하여 군민과 출향인 들에게 전해오던 어사매가 제호를 달리하여 황성문화로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호를 변경하게 됨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자 많은 인사들의 의견과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해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대과 없이 보내게 됨을 지역주민과 그리고 고향 사랑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신 출향인사, 고향에서 전통문화기술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황성문화원 회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는 그 변화의 속도를 더해가면서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로의 전환과 창의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기 주도적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군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을 온 군민과 함께 기뻐하여 마지않습니다. 문화는 고유한 것과 밖에서 흘러들어온 것이 충돌과 화해, 지속과 소멸, 창조와 생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역 고유한 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과 지역민들의 잠재의식을 태반으로 일어난 개인적 성취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사회발전, 문화발전에 공헌하게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에 의한 문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지역민의 문화요건은 인재육성과 지역사회 문화발전, 평생학습이 바탕이 되며 보편화 되는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문화원이 되고, 이 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생

산적인 문화 조성을 앞장서려고 합니다. 이는 황성문화원 가족들의 성원과 신뢰 속에서 가능하며 구성원들의 혁신적인 의지와 열정이 있을 때만이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늘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하면서도 그것의 존재와 가치를 느끼지 못해 문화가 주는 즐거움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규호 군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황성문화 제 『2007 황성문화』를 발간하기까지 애를 써주신 정재영 편집위원장과 모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변화 없는 관심과 애정만이 황성문화의 촉매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07년 12월

황성문화원장 김 광 수

## 축 | 간 | 사



횡성군 유일의 향토문예지로 향토문화의  
구심점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 왔던『어사매』  
가 한층 업그레이드 된『횡성문화』로 다시  
태어나 『2007 횡성문화』가 발간됨을 진심  
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21C 문화가 최고의 창조산업이고 선진국에서  
는 실제로 가장 유망한 산업입니다.

차별화된 문화인프라 구축은 지방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고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로 성장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횡성문화원을 구심점으로 보다 삶을 윤택하고 풍  
요롭게 살아가려는 군민의 문화활동 의지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지  
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흐름을 소중하게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데 이제는 모든 힘과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이  
것이 『미래청정법인 횡성』을 실현하는 빠른 길입니다.

횡성문화경쟁력의 밑바탕이 될 전통문화예술을 한차원 더 발  
전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우리 『횡성문화』가 문화의 전령사로서  
미래의 창조적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 지방의 고유한 문화는 색다른 우리의 미래를 밝혀줍니다. 우

리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적극동참해 주시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횡성을 창출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2007 횡성문화』가 나오기까지 김광수 횡성문화원장님을 비롯하여 집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열정이 군민의 마음으로 전해지길 바라며, 발간에 애쓰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횡성군수 한 규 호



## 축 | 간 | 사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무  
자년 새해를 맞아 지역에 대한 깊은 사랑과  
정성어린 사랑의 손길로 가득 채워질 『2007  
횡성문화』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어사매라는 이름으로 우리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널리 알리며 지역문화 창달을 해 온 김광수 횡성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좀 더 새롭고 업그레이드된 『2007 횡성문화』라는 좀 더  
친근한 제명으로 군민을 찾아가게 된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유구한 역사속에서 서서히 진보하며 전승, 창달된 지역문화는  
현재 삶을 영위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호흡하고 행동함에 있어 비슷한 유형을 보이는  
근본적 원인에는 지역의 공동체적인 역사와 삶의 경험속에서 형  
성된 지역문화가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 무의식 속에 인지되어 있는 문화적 동질성은 그  
지역만의 독특한 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유  
구한 세월을 버티어 오면서 현재의 삶에 유익한 영향을 끼쳐오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전통문화가 곧 미래의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에서 비롯된 그 지역만의 특  
색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발간되는 『2007횡성문화』가 그 중요성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문화의 등불로서 횡성만의 고유문화를 알리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역문화예술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역의 결속과 화합을 다져주는 매스미디어로서 새로운 지역문화를 열어가는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2007 횡성문화』발간을 축하드리며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배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의회회장 김 춘 환